

지역 소식통

부안군 보건소, 찾아가는 치아탄탄 건강교실 운영

부안군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철저한 치아 관리를 위해 관내 22개소 초등학교 1,840명을 대상으로 구강이동진료버스를 이용하여 치아탄탄 구강건강교실을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아탄탄 구강건강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예방치치 진료 동의서를 학부모들에게 발송하고, 진료 동의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구강검진, 치아 홈메우기, 불소겔도포 등 예방진료를 실시한 후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돕는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개소 초등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예방서비스 위주의 일대일 구강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강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강이동진료버스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체계적인 예방 치치, 다양한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구강병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구강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문화의전당, 뮤지컬 '목 짧은 기린 지피' 공연

'목 짧은 기린 지피' 공연

고창군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뮤지컬 '목 짧은 기린 지피'를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에 고창문화의전당에서 공연한다.

'목 짧은 기린 지피'는 베스트셀러 동화작가 고정욱의 원작 동화를 무대로 옮겼다. 기린 '지피'를 통해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미워해서는 안된다'는 주제를 신나고 재미있게 그려낸 가족 뮤지컬이다.

2012년 초연 이후 서울어린이연극상 대상과 주요연극대 대상 등 총 6관왕을 수상한 우수 공연이다. 연극계 심사에서도 '극의 구성과 무대, 음악은 물론 관객들의 호응과 재미, 독창성 등에서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으로 극찬을 받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중대 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정읍시, 안전·보건 전담 TF팀 신설... 안전한 정읍 만들기 총력

정읍시가 중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대 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보건 경영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철저한 책임의식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 중대 재해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정읍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종합계획은 '선진 안전 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 재해 제로(ZERO)화 실현'을 목표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안전 수칙·절차 준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중대 산업재해 대응, 중대 시민재해 대응, 공통 대응 등 3대 추진 전략과 전담 TF팀 구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이행, 전문가 컨설팅 용역 등 주요 추진 과제 등이 포함됐다. 시는 체계적인 중대 재해 관리를 위해 전담 조직인 '중대 재해 테스크포스팀(TF팀)'도 신설했다. TF팀은 3대 추진전략에 맞춰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도로 교량, 체육시설, 청사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이에 따른 보수·보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향후 계획에 따라 안전 점검 및 직원 대상 교육 등을 추진하여 중대 재해 없는 안전 행복 도시 정읍시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농촌재능나눔사업'을 본격화한다.

농촌에 '활력' 불어넣는다

정읍시-전북과학대, 대학생 150여명 참여 농촌 재능나눔

정읍시가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농촌재능나눔사업'을 본격화한다.

'농촌재능나눔사업'은 대학생들의 재능과 특기를 살려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농촌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농촌지역 균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사업을 통해 농촌에 필요한 주민건강 보건과 복지증진, 마을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등을 추진하며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올해 봉사활동에는 전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인경광학과, 디자인과 등 11개 학과 교수진과 재학생 약 150여 명이 참여한다.

5월부터 12월까지 덕천면 장문마을을 비롯한 읍·면 지역 8개 마을을 대상으로 의료·복지·문화 등 다양

한 재능 나눔 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만성질환 조기 예방 △구강건강 관리 △시력검사 등 근용 안경 증정 △어르신 영양 식단 개발 △이·마을 봉사 △행복 사진 촬영 △실내환경 꾸미기 △우체통 설치 △다문화가족 동행 프로그램 △장애인·아동 대상 놀이 지원 △스마트 폰 활용 교육 △마을 환경 정화 등 농촌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지난 2년간 추진하지 못했던 농촌 재능 나눔 축제도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활용해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내수면 양식장 양식생물 입식 신고 철저 당부

정읍시, 6월 10일까지 입식·출하·판매 신고서 제출기간 운영

정읍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고수온과 태풍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내수면 양식 어가에 양식생물 입식과 출하·판매 신고서 제출을 당부하고 나섰다.

자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입식과 출하·판매 신고서에 매매 전표, 수산 종자 구입·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장에 신고해야 한다.

입식 미신고 어가는 태풍 폭우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 발생했을 경우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구호 또는 복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시는 매년 입식 신고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정읍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고수온과 태풍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내수면 양식 어가에 양식생물 입식과 출하·판매 신고서 제출을 당부하고 나섰다.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를 홍보하고 있다. 올해는 오는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약 3주간 입식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주철 고창군수 권한대행, 농업용수 가뭄대비 현장 점검

이주철 고창군수 권한대행이 지난 19일 가뭄으로 인한 영농차질에 대비해 농업용수 관리 현황 등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대행은 농생명지원과장 건설도시과장 이산면장, 성송면장과 함께 하천 농업용수 부족으로 한해 피해가 예상되는 이산면 목동리와 성송면 고치리 주민전원 일원 현장을 찾았다. 주민전은 평소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는 데 봄가뭄이 계속되면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산면 목동리 무장면 목우리 일원(41ha), 성송면 고치리 일원 농경지(8ha)는 주민전과 평지천에 설치된 가동보, 강남천과 주민전 합류점의 양수장을 통해 하천수를 이용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하천수가 부족할 경우 심각한 농경지 한해 피해 우려가 크다.

이 대행은 하천 하상굴착 등을 통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장비임차료를 조기 투입하는 등 신속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주철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흠어져 있는 물 한방울이라도 모아서 필요한 곳에 제때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읍, '국가유공자 명패달기 사업' 추진

부안읍(읍장 김남철)은 지난 19일 부안읍 공상군경유족의 자택을 방문하여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 드렸다.

이날 김남철 부안읍장은 국가유공자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명패를 달아드린 것을 시작으로, 부안읍에서는 공상군경유족, 무공수훈자유족, 전상군경유족 등 총 22명의 국가유공자를 방문하여 명패를 달아드릴 예정이다.

부안읍장 김남철은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의 공로덕분"이라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부안읍



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유공자를 지역사회와 함께 예우하고 위로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630명의 국가유공자 자택에 명패를 달아드렸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